

# 약물·폭력·성 탈선 심각... 멍드는 '푸른 꿈'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5

## 흔들리는 청소년

세기말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 그들은 학교와 집 그리고 거리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우등생'이 되려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로 생각한다. 그들은 또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지 못한 채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을 전전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시간마저도 헛실한다. 그들은 항상 방황하고 있다. 심각한 육구불안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과 개성을 펼칠 공간과 시간을 누리지 못한 청소년들은 약물, 매춘, 폭력과 같은 인생의 막차를 주저없이 탄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뉘어 막차 탄 청소년을 본다면, 악아를 라훌라(Rahula)를 생각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타인들을 라훌라처럼 여겨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불교는 이제 라훌라, 즉 청소년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선제동자의 53 수리의 행렬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궁지에 몰린 청소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리와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플로리다주 콜럼비아고교와 캐나다 앨버타주 마이어스고교에서 총을 난사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학교에서 하나같이 '왕따(real loser)'로 통했다는 것. 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학생들도 '범인이 괴로워 죽겠다고 달려 놓았으며 친구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유마경〉에서 유마할 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말했다. 불교적 세계관인 인드라마에서 하나의 잘못된 골바로 다른 잘못으로 이어진다. 청소년이 앓고 있다면 전 사회가 앓고 있는 것이다.

### 왕따·총기난사 '사회문제'

교계 청소년 월간지 〈속삭임〉(1월호)에서 전국 53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 경험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흡연청소년은 26.3%(142명)으로 4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인인을 묻는 질문에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4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전체 흡연 청소년 가운데 92%가 초·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의 권유나 스스로의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조사됐다.



◇지난달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 덴버시 컬럼비아 고등학교 밖에서 구조요원들이 부상한 학생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학생과 교사 등 최소 25명이 사망했으며, 해내 불령새같은 '트렌치코트' 소행으로 발표했다.

## 가정 학교 사회의 지도·통제기능 약화 범죄 연령 매년 낮아져...이해와 관심 절실

### "선제동자 구도·계정해 가르침 교화 지침 삼자"

청소년 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흥족화, 상습화, 집단화, 자연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 '1998년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상해·공갈 등의 폭력범죄가 36.5%, 절도·횡령·사기 등의 재산범죄가 25.4%, 살인·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4.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5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가 1989년 18.4%이던 것이 1998년에는 32%로 약 1.4% 높아진 반면에 18~19세의 청소년 범죄는 1989년 49.2%에서 1998년 43.2%로 낮아져 청소년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사회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중독성과 발달행위를 조장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가정과 학교의 청소년 지도기능과 사회의 통제가 약화된 것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세기말 청소년의 초상은 오직 절망적이거나 한 것인가? '출근 모범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길준(19·전북 전주)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장군은 전북지역에서 열린 각종 청소년 대안사업대회에서 상을 휩쓴 전주교촌 동아리 '엘프(개구쟁이)'의 리더다. 장군은 '출=탈선'이라 사회적 통념을 깨

고 모범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친구와 동기연고와 정부의 제도적 장치 미전에서 비롯됐다. 황교장은 엘프의 출 연을 지켜보고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고 실력이 뛰어나다"며 건질 봉아리로 지정했고, 문화관광부는 장군을 '신지식인' 청소년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 건전한 인성교육 급선무

'신지식인'이란 정부가 찾아 나선 위 기극복의 새로운 인간형으로,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람을 지칭한다. 따라서 신지식인은 고급지식을 가진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중국음식점 배달원, 파출부, 건물청소원도 신지식인 대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장길준군은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 '우리 춤'의 대중화를 꾀했다는 다부진 포부를 키우고 있다. 한낱 뒷골목 춤꾼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장군이 이제 무용가로서 21세기의 무대를 서겠다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란 바로 '이해'와 '관심'이다.

〈속삭임〉을 발행하고 있는 덕진선님도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이 들

길만한 놀이문화공간의 확충'을 필수조건으로 지적했다.

경전에서 청소년은 동자(kumara)로 등장하며, 구도자의 상징이자 희망찬 역할을 담당한다. 석가모니의 전신도 설산 동자(靈山童子)였다. 〈열반경〉에서 설산 동자가 한 귀족의 밭을 돌기 위하여 제 몸을 버림에 던져 나찰에게 공양한 일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구도상은 싸움이 되어 설산동자는 마침내 성불하였다. 여기에서 동자(청소년)는 곧 '부처의 씨앗'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생각은 동진불(童眞佛) 즉, 청소년을 부처라는 이상으로 꿈꿔야 한다. 〈화엄경〉에서도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깨달음을 증득해 나아간다.

지금의 불교교육자들이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에서 청소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설산동자와 선제동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정), 진리를 찾는 방법(혜)이었기 때문이다.

또 선제동자의 스승이었던 다양한 인물에서 기성세대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화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며 사양하는 이가 있다면, 바로 그 때문에 이 시대의 선제동자가 길을 잃고 네거리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중서박사(교육학)는 "청소년은 도덕적 위기의 조상자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청소년 스스로 책임하고 탐구하도록 우리는 좋은 벗이 되어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 청소년지도사 현황

3000명중 교계 60~70명  
'부처 씨앗' 교화 말뿐

최근 학교, 사찰 불교학원 등 청소년들의 신원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이를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지도사까지 크게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경쟁 시험 결과발표에 따르면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1급이 8명, 2·3급 모두 포함해 40명을 넘지 못했다.

전체 결과에서 1급 합격자가 137명, 2·3급 합격자를 포함해 610명의 새로운 청소년 지도사가 배출된 것을 감안하면 불교계의 지도사 및 면 중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16개의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와 충남지부(지부장 성관스님) 2곳뿐이며, 3,000여 명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유자 가운데서 불교계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60~70여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문 지도사의 부족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의 경우에 있어선 불교학원의 존립 문제와 연결돼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 포교자인 〈법보〉(발행인 장완익)의 조사에 따르면 98년 12월 까지 사찰불교학원 318개, 학교 내 불교반 216개 등 총 534개의 불교학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 지도교사가 불교반을 이끌고 있어 담당교사의 '전근 문제'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불교학원의 경우 지도 법사가 없는 곳이 의외로 많아 청소년 법회가 사라지거나 친목단체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지도사가 부족한 원인은 교계의 풍토에서 찾을 수 있다. 자격증이 있더라도 청소년 단체에서 일하지 않고는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종단이나 사찰에서 전문 지도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더욱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정 기간 연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소속 불교단체의 시간적·실리적 배려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청소년 지도사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연도	소년범죄자 인원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993	110,604	2,307	2.1	23,290	21.1	37,176	33.6	47,831	43.2
1994	108,342	3,000	2.8	25,424	23.5	37,418	34.5	42,500	39.2
1995	124,244	2,551	2.1	32,352	26.0	45,707	36.8	43,634	35.1
1996	146,986	4,660	3.2	38,084	25.9	53,130	36.1	51,112	34.8
1997	164,182	4,093	2.5	42,786	26.1	61,622	37.5	55,681	33.9

※문화관광부 발간 〈청소년 백서〉(1998)

##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등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1지형 전선 제작, 판매입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광안) 동화사(광안) 갯바위(광안) 의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성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1지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송곡동 180-1  
**천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 최고의 제품으로 사찰을 전산화시켜 드립니다.

WINDOWS 95, 98, NT용  
상황사찰종무관리 1999 VER 5.0

- 한번 입력으로 신도, 영가, 법회, 제사 일괄관리
- 축원, 천후문, 연등고리표, 위패, 라벨, 엽서, 규격부투, 신문띠지 등 연속 및 낱장용지 인쇄가능
- 각종 신도회를 보조하는 검색 기능
- 신도들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구역별 조직 가능
- Y2K 문제 해결
- 업계 최고의 제품으로써 가장 저렴한 가격

·타사 제품을 본사 제품으로 바꿀시에는 무료로 데이터를 변환시켜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특별 할인가 40만원  
·부처님 오신날 이후에는 정가 70만원

**02)998-6026**  
대한불교 정토회 전산사업부

## 능엄경 연찬 강독 및 통신 강좌

능엄선회에서는 매달 4째주 일요일 오전10시~오후5시에 불공삼장역 개운조사 주 정본 수 능엄경을 가지고 연찬 강독을 하고 있다. 강독회에 참석 할 수 없는 분을 위해서 1권부터 통신 강좌도 시작한다.

- 연찬 및 통신 강좌 회비 6개월(1학기) 90,000원
- 문의 및 연락처  
TEL 053)473-6700, 0880, 473-0880  
FAX 053)472-1752 H.P 016-543-5114

온라인 국민은행 615-21-0742-234 입상수  
705-923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639-2

**능엄선회**